

20년의 질긴 악연... 외환은행 헐값 인수로 5조 챙긴 론스타

론스타 분쟁 10년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012년 하나지주에 지분 매각

주주배당금 등 5조 수익에도
韓에 5조 규모 손해배상 청구
금융당국 책임 목소리 불거질 듯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로 불리던 사건이 10년 만에 일부 종결되며 사건의 중심인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와 관련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와 지연이자 185억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금융당국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펀드는 1995년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사모펀드 기업이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0년대 초 중반 당시, 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진행 경과



2012년 5월22일	중재의항서 접수	▶중재 제기 의사 통지
2012년 11월21일	중재신청서 접수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2013년 5월9일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톤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년 10월 ~ 2015년 3월	서면 심리절차	▶[2013. 10. 15.] 론스타 1차 준비서면 ▶[2014. 03. 24.] 정부 1차 준비서면 ▶[2014. 10. 01.] 론스타 2차 준비서면 ▶[2015. 01. 23.] 정부 2차 준비서면 ▶[2015. 03. 31.] 론스타 관할 추가서면
2015년 5월 ~ 2016년 6월	심리기일 개최	▶[2015. 05. 15. ~ 22.] 1차 심리기일 (중인신문, 워싱턴 DC) ▶[2015. 06. 29. ~ 07. 07.] 2차 심리기일 (중인신문, 워싱턴 DC) ▶[2016. 01. 05. ~ 01. 07.] 3차 심리기일 (변론, 네덜란드 헤이그) ▶[2016. 06. 02. ~ 06. 03.] 4차 심리기일 (변론, 네덜란드 헤이그)
2020년 3월6일	의장중재인 사임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의 사임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정지
2020년 6월23일	새 의장중재인 선정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이안 비니 선정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 재개
2020년 10월14 ~ 15일	질의응답기일 진행	▶새 의장중재인의 질문에 당사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화상)
2022년 6월29일	절차종료 선언	▶중재절차종료 선언
2022년 8월31일	판정 선고	▶ICSID "한국정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 배상해야"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뉴스 그래픽

한국에 알려지게 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게 되면서 독일의 코메르츠뱅크 은행이 출자자를 맡았다. 코

메르츠뱅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

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위협에 처한다. 이에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뱅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가운데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선다.

다만, 2003년 당시 국내 은행법은 해외은행 및 기간은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해야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인 경우다.

이에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하며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든다. 이후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은행대주주 자격을 승인하게 된다.

결국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뱅크와 정부의 지분을 3000억여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됐지만,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면서 2조5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여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여기에 론스타는 기존의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하고 지점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주주배당까지 5조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제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론스타 소송제기 10년만에 중재절차 종료

>> 1면 '정부, 론스타에 2900억'서 계속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고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제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구남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제2금융권 업권별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코로나에 폭염·전력난까지... 제조업 '암울'

차이나 뉴스&리포트

중 제조업 PMI 2년여 만에 최저치
"10월 당대회 이후 정상화 기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통제에 폭염과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전망이 암울해졌다. 두 달째 경기 위축 국면이 이어졌고, 그나마 버텨주던 서비스업마저 하이난 봉쇄 사태 등으로 악화됐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나타났다. 전월 49.0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50에는 미치지 못했다.

PMI는 구매, 생산, 유통 관리자 등의 월별 조사 결과 집계치로 경기 선행 지수 중 하나다. 50을 넘기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위축을 뜻한다.

제조업 PMI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지난 4월 47.4로 우한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6월(50.2) 한 달을 제외하고는 반 년째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됐다"며 "폭염은 점차 진정되겠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주요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오는 10월 당 대회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수정될 경우 경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제조업 경기는 둔화됐다.

서비스업 경기를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는 8월 52.6으로 전월(53.8)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 PMI는 지난 6월 이후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세다. 중국에서 관광지로 손

꼽히는 하이난이 전면 봉쇄되면서 여행을 비롯한 숙박, 요식업에 모두 부담이 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축업도 부진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 줄리안 에반스-프리차드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지표 등을 보면 중국의 성장 동력이 더 약화됐음을 알 수 있다"며 "쓰촨과 충칭의 전력 공급이 복구되는 등 전력난에 따른 혼란은 줄었지만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전히 봉쇄에 따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7월 공업이익 지표도 크게 부진했다.

중국의 1~7월 공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4조9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앞서 1~6월 공업이익은 1.0% 늘었지만 7월 폭염과 전력난을 겪으면서 마이너스(-)로 뒤집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 신설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열고
손실흡수 능력 제고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적립 기준을 높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겠다"면서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나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채주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신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구남영 기자